

신입생, 재수강시 학점 제한

면학분위기 형성을 이유로 새내기부터 적용

2000학년 신입생부터 재수강 최고 학점이 B로 제한된다. 학점제한조치에 유예기간을 두어 학생들이 대학 생활을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취지다. 학점제한을 시행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학점을 제한하는 것에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재수강시 학점을 B로 제한하는 방안은 지난 98년 11월 열린 중앙교과과정 신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었으나, 그 이후에 이어 학과측의 갑작스런 시행으로 학생들의 반발을 사 적용되지 못하고 있었다.

이렇듯 학과에서 B 학점제한을 시행하게 된 이유는 많은 학생들이 재수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교수 일당에서 강의의 수준을 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교과과정이 단계별로 진행되는 것은 어떤 계열의 경우 더 심하다.

하지만, 현재 재수강 인원은 양 배를 더 한쳐 700여명(중앙인원)이 여러 과목을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 숫자임. 상당수의 학생들이 재수강을 하고 있는 상태로 학과에서 재수강을 하는 학생들의 수를 비교했을 때 수업 당 재수강 인원이 수업에 지장을 줄 정도로 많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조영숙(교과)을 가르치고 있는 영어과 강명숙 교수는 "강의수준을 정하는 문제나 수업분위기는 재수강 학생들로 인한 것보다 학생들이 개인적으로 오는 것이 크다. 이러한 차이를 감안해 수업을 편성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수강하는 학생들이 많은 것은 학생들이 그만큼 수업에 충실하지 않다는 것을 반영한다는 것이 학과측의 주장이다.

물론과 박시현 교수는 "지적이 없다. 동기가 부족한 사람들도 많이 있고, 수업분위기를 흐트린 경우도 많다. 기기가 주어졌을 때 공부하지 않은 것에 대한 일종의 반발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은가"고 밝혔다.

이러한 반박의 문제제기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학생들이 공부하지 않고 재수강을 기대는 면이 없지 않다. 이에 대해 추경호(사상·독일어) 교수는 "학생들이 공부해서 획득하는 성적에 제한을 두는 것은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교수승급 등을 통한 교육여건을 개선해 면학분위기를 조성하는 방법이 더 나은 방법일 것이다"고 밝히 학점제한의 문제점에 대해 꼬집었다.

학과측에서 밝히고 있는 학점제한의 원인으로 학과와 재수강으로 인해 저학년이 학점에 있어서 피해를 보는 것을

상대평가로 진행되고 있음을 언급적으로 나타내고 있어 문제점을 드러낸다.

독일어과 나영권 교수는 "학과에서 상대평가를 기준으로 한 평가를 교수들에게 권고 하고 있으며, 지켜지지 않을 경우에는 시달려 제출까지 해야 한다"며 학과에서 교수들의 재량에 맡기고 있다는 상대평가가 교수들에게 무시할 수 없는 강요로 다가올을 밝혔다. 또한, B 학점학점에 대해 "학과측이 학점에 너무 민감한 것은 면이 없지 않다"고 말해 재수강 제도가 남용되는 면도 지적했다.

학생들이 재수강 제도를 남용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러한 재수강 제도의 학점제도가 상대평가와 함께 실시되는 것은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학점에 정진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을 학점에 얽매게 할 소지가 있다.

학과측은 학점의 제한을 통한 소극적인 방법이 아니라 교수인원의 확충이나, 강의시설의 개선 등 학생들이 학문 탐구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방법을 우선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이다.

박수용 기자 soma-j@hanmail.net



한쪽에만 복직복직

"학기초부터 고집났는데 고쳐질 기미가 안보여"라고 감성터(동양·일본어)담당 컴퓨터 실습실에 대한 불만을 털어냈다. 이는 서울배움터 1강의 제 1 컴퓨터 실습실은 작동되지 않는 컴퓨터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모습이다.

사진부

최대 3시간 행정불편 최대 피해자는 학생

학내의 행정처리가 잘 되고 있는지는 365일 학생들에 의해 검증된다. 학생들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행정부서는 더욱 그러하다. 이 사실을 상기시켜준 사건이 분산자에게 있었다. 이 사건의 발단은 학내운영위원회에서부터 시작됐다. 주말에 열리는 회의라든지 많은 대표자들이 참여하지 못했지만, 총학생회장인 장진환 뒤 채 열리는 학내운영위원회에서 대표자들의 활발한 의견제기가 있었다고 밝혔다.

회의 중반쯤이던, 2000학년 신입생부터 재수강 B 학점제한, 상대평가 제도 등 학생 관련한 주제를 놓고 다양한 의견이 오가던 중 법대 김모교수는 "학교측이 제도와 한도도 없고 그대로 지켜지는 것은 아니냐"며 "졸업 예정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학업을 성적표에 F 학점을 사체로 바꾸기 한 것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학내운영위원회가 끝난 후 김교수의 발언을 확인하기 위해 본 편집자는 지난 13(수)일 학과에서 직접 찾아가다. 김교수의 말대로였다. 담당자는 "현재 진행중인 종합정보시스템구축이 늦어져 처리가 되지 않고 있다. 전산상으로 연락해 시장을 부탁했다"고 말했다. 학과와 직원의 말대로 전산처리가 안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었지만 또 다른 문제가 있었다. 전자기산소에서는 인사이동으로 학사업무 담당자는 직원이 자리를 옮겨간 상태에서 졸업예정자에게 F 학점을 사체로 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직원이 없는 것이었다. 전산소의 한 직원은 필자의 설명을 듣고 학과에서 사체를 확인해 본 후에야 자초지종을 설명하면서 "내주 안에 처리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졸업대상자 F 학점 사체" 규정은 때때 졸업대상자 발표와 동시에 이뤄지고 있다. 올해 8월 졸업예정자에 대한 발표가 지난 11월(월)이었으니 담당자의 말대로 이번주 내에 처리가 가능하면 1주동안 처리가 되지 않음으로 인한 학생들의 피해는 그리 크지 않다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규정이 생긴 것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졸업이전에 취직자리를 구하고 있고, 취직 응시자에게 있어 학점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감안한 다른 사안을 넘어 졸업대상자들에게는 중요한 문제다 할 수 있을 것이다.

작년부터 시행된 이 제도가 직원을 사이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항상 행정처리로 인한 피해에 학생들이 겪게 되는 것임을 직원은 알아야 할 것이다. 또한, 그 누구보다도 그런 인내를 학생들만 먼저 알아야 한다는 것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박수용 기자 soma-j@hanmail.net

제2학기학내대중정보발전준비상황

모두에게 특이되는 구조조정 이뤄져야

엘지 컨설팅인원을 기초로 한 발전인의 밑그림들이 거의 결정되고 있는 가운데 구조조정안을 두고 학내 구성원들의 의견이 서로 엇갈려 현재 협의를 찾고 있다.

지난 3월 15일(수)부터 22일(수)까지 제2학기학내대중(기획단)이 우리학교 구조조정 방안을 묻는 설문조사를 양배움터 66개 학과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기획단측이 제시한 3개의 구조조정안 가운데 1안과 2안은 서울배움터와 용인배움터의 영어과, 중국어과, 일본어과처럼 사회적 수요가 높은 과와 동구어, 아프리카어 등 특색있는 과를 제외한 중핵학과를 통폐합해 서울배움터 중심으로 인원을 발전시키는 방안이다. 또한, 이를 통해 얻어지는 인원으로 용인배움터에 실용학문을 중심으로 과를 개설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1안과 2안의 차이점은 통폐합할 때 서울배움터 정원을 유지시키느냐 줄이느냐 하는 것이다.

이 두안에 대해서는 중핵학과를 제외한 학과의 경우에서 찬성하는 입장이

를 개발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의과와 발전방향을 정하는 데 있어 언어학과 발전상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양 배움터의 특화발전 방향에 대한 논의가 다양하게 표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제 2학기 기획단장 성형용 교수는 "56년 중핵 발전방향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예전에 만들어진 마스터 플랜은 현실적인 모습이 고려되지 않아 제대로 시행되지 못한 측면이 있는 것을 감안하여 다소 시일이 소요되더라도 다양한 의견을 조율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 언어학과 6개 단과대학의 위원회 준비하고 있는 발전안이 제출될때까지 기획단의 발표는 미뤄질 전망이다.

마지막에 있는 발전안을 두고 자신의 학과나 자신의 실익을 재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외대에 발전할 수 있는 거시적이고, 대외적인 안목으로 발전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박수용 기자 soma-j@hanmail.net

사설

부당한 한미행정협정, 이제는 안된다

미군은 개성과정 성실하게 임해야

이렇게 한미관계는 다른 우범과 달리 역사적, 국가적으로 중요한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는 소중하게 그 우정을 새로운 세기에도 더욱 성숙하게 발전시키고 지켜가야 할 것이다.

그런데 최근 불명분한 '한미행정협정'으로 치러지는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으로 인해 생긴 한미간의 불필요한 마찰은 그동안의 돈독한 우정과 신뢰를 금기하고 미래에 소중한 한미간의 더 큰 상호 이해조절을 어렵게 만들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

한미행정협정의 주요한 불명분 문제는 미군범죄에 대한 한국 형사관할권 행사의 불충분, 미군의 불법행위로부터의 민간소해배상청구절차의 복잡성, 미군부대내 한국노동자의 노동 3권 보장의 미흡, 미군의 시설과 기지 인의 환경 오염문제와 미군 시설과 구역 안 관리권 행사의 남용문제, 통관, 관세 및 조세상의 지나친 특혜 부여문제 등이다.

그 예로 시설과 구역안의 경기도 매행의 '루나' 사적장에서 지난 50년 동안 미공군이 유독과 핵상 무기까지로 인한 폭풍폭발로 아명은 파괴되고, 마을 주민은 소름으로 난항자나 정신질환으로 인해 자살하는 자가 속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행정절차에서 갈라 매행의 피해주민은 민원조차도 못하다가 최근 관계기관에 관리 주장을 하여 부분적으로 한국정부에 배상금을 결정하는 했지만 주민의 충분한 정신적 피해와 근본적 해결에는 매우 미흡하다. 이것은 한미행정협정에서 환경규정을 신설하지 않고는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다.

물론 이에 대해 미국측은 어떠한 사과나 법적 배상이 없어 행정협정을 근거로 주민의 인내만 강요해왔다. 독일보충협정은 환경규정이 신설되어 기지와 시설내에 독일 국내환경법을 적용하여 이러한 기지내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또 한편 3월 10일 미군이 서울 용산미군기지 안에 관한 구청과 협의도 하지 않고 6층짜리 호텔을 짓고 있어 구청측과 심각한 마찰을 빚고 있다. 미국측은 "한미행정협정 제3조는 미국에 공여된 시설과 구역내에서는 미국이 구역의 운영, 경찰 및 관세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는 구조조정의 건축도 포함되고 간행하고 있다. 그러나 용산구는 "주민대회는 대한민국의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는 행정협정 제3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미일협정이나 필리핀 협정에는 미군이 시설과 구역안에 위치한 무기반입이나 군사작전지 점수과 사정 협의는 거치는 등 어느 정도 관리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우리처럼 무리한 일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한다.

위의 사례는 빈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미국측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정하기 때문에 지난 1995년 10월 한미양국은 1995년 1월 말까지 한미행정 협정을 개정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런데 지난 1995년 9월 10일 제1차 협상을 끝으로 당시 한국의 대통령선거를 빌미로 하여 일방적으로 협상 결렬을 통고하였다. 그런데 보도에 의하면 금년 2월 18일 한미 양국의 국방장관은 다시 4월말에 개정협상을 재개하겠다고 한다.

세로로 세기에 한미관계를 더욱 한층 발전시키기 위해 미국측은 이번 개정협정에 진정으로 성실하게 임해 주길 바란다.

2000학년도 제1학기 수강신청 취소 2000학년도 수강신청 취소 일정을 아래와 같이 공고함 - 아 래 - 1. 수강신청 취소 기간 2000. 4. 10(월) ~ 4. 21(금) (단, 4. 20(목)제외) 2. 수강신청 취소 시간 매일 09:00 ~ 17:00 3. 수강신청 취소 방법 인터넷을 이용한 온라인 수강신청 취소 4. 제 한 취소하여 12학점 미만이 되어서는 안됨(4학년 제외) 2000. 4. 교무처장	2001년 졸업생(기졸업 포함) 취업DB등록 안내 우리 대학 취업정보센터에서는 취업준비생들에게 보다 폭넓은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취업 알선 전문기관인 '리크루트'와 계약을 맺고 2000년 4월부터 인터넷을 통하여 구직등록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구직등록 신청방법은 본인이 직접 학교홈페이지를 통해 리크루트의 구직등록서비스를 클릭해서 ID는 학번을 PASSWORD에는 주민등록번호 뒤의 7자리를 입력하여 이력서 등 신청자료를 작성하면 됩니다. '리크루트'는 맞춤형정보시스템을 운영, 학생의 적성, 능력, 희망사항을 고려하여 구직등록 신청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1회이상 구인기업체에 맞춤 추천권리 합니다. 취업준비생 여러분의 많은 신청을 바랍니다. ◎ 구직등록 신청기간 : 2000년 4월 ~ 9월말 ◎ 추천권리기간 : 2000년 10월 ~ 2001년 2월말 2000. 4. 12 학생취업정보센터 소장	전자상거래(EC) 전문가 과정 전자상거래 관리자 자격 시험 대비 및 EC 전문능력 배양의 기회 !! ○ 교육의 특징 · 9월 실시 예정 제1회 전자상거래 관리자 2급 자격증 시험 대비 · 대학 교수 및 벤처기업 경영자 등 EC분야 최고의 강사진 · EC관련업체 현장 방문 및 벤처기업인 특강 · 전자상거래전문가 자격증 수여 · 전자상거래 창업 지도 · 오리클 ICS PLUS 및 Commerce 21을 이용한 시스템 구축 ○ 교육기간 : 2000년 5월 3일(수) ~ 7월 26일(수) / 월·수(19:00~22:00) ○ 교육장소 :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회관 2층(지하철 1호선 950명역에서 도보 5분) ○ 등록방법 : 홈페이지에서 입학신청서 다운로드하여 E-mail, FAX, 또는 방문하여 접수(한국외국어대학교 경영정보대학원 교하리) ○ 수강료 : 150만원(외대 재학생은 120만원) 무통장 입금(천원화) 또는 홈페이지 참조 ○ 수강인원 : 수강료 납부 시 선착순 50명 ○ 문의처 : 한국외국어대학교 EC전문교육과정 주임교수 TEL : (02)961-4727 FAX : (02)961-4727 홈페이지 : http://www.ectraining.org E-mail : admin@ectraining.org ①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영정보대학원/세경경영대학원 주관 한국외대를 주식회사 후원	교양특강 2000학년도 제1회 교양특강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많은 참석 바랍니다. - 아 래 - · 연 제 : 우리나라의 대중문화정책의 향후 전망 · 연 사 : 박동순 전 중앙일보사 · 일 시 : 2000년 4월 21일(금), 15:00 · 장 소 : 교수회관 2층 강의실 2000. 4. 14 동양대학장 외대사랑 외대발전 발전기금 ARS : 700-0202
--	---	--	--

로키움

문화의 겨울

백아로 유명한 러시아 제 2의 도시 상트-페테르부르크. 이곳의 겨울은 빠르며 10월 초에 시작되어 이듬해 4월 중순까지 이어진다. 이 기간에 시민들은 추위의 혹독함보다 약 18시간에 이르는 밤시간의 아름다움에서 자기 안락함과 한계와 맞닥뜨린다. 긴 겨울밤 나기를 위해 일찍부터 이 도시에서는 야회(夜會)가 발달했다. 상류층의 일상적인 밤회장은 대개 호텔에 있는 이들과 공연장이나 예술관은 두그름으로 구분되었다. 저명한 가문들이 마치 유령처럼 자신들의 지역 안에 50~300석 규모의 극장들을 설립하여 부호들이라도 이에 가담하는 문화의 겨울은 상류 사회의 특색으로 공작들은 함께 배치해 복합문과 휴게시설로 장식되곤 했던 것이다. 아직 전문음악인 하나 없었던 1860년대 당시 큰 인기를 구가하던 아레리 오페라와 막 공연을 끝까지 시작하는 오페라에 대한 찬탄 논쟁으로 전 도시가 시끄러웠던 전례를 보면 20세기 초 스트라빈스키와 러시아 발레를 앞세워 전 유럽을 휘둘렀던 문화가 자라나고 있었다. 그 명성은 상악기 시대, 발레와 카바레, 발레, 레닌그라드, 발레와 연극 분야의 '발레' 드라마 극장 등으로 이어져 왔다.

월 평균 50배 미만의 낮은 봉급으로 생계를 위해 달하는 오늘날도 공연문화에 대한 시민들의 열의는 역시 뜨겁다. 9월달부터 5월달까지 120여개의 극장이 거의 매일 작품을 올리며, 주목받는 예술가의 공연이나 초연되는 프로그램의 표는 건국 100년이 넘음에도 공연 20일 전에 그 대부분이 팔려나간다. 두통한 달가운 전화를 구두로 바꿔 신고 객으로 들어가는 관객들, 관객의 수려한 복장과 잔잔한 태도, 극장의 밝은 분위기는 즐겁고 편안한 거리와 놀라운 단조로움을 이룬다.

필자는 유서깊은 극장을 방문할 때마다 '이들에게 문화는 무엇인가?'라는 의문을 던지곤 했다. 스포츠보다 공연생존계가 더 많은 경제한국 러시아, 문화를 통해 한국이 되기를 꿈꾸는 이들의 기대가 끝내 경제의 벽에 막혀 망망으로 머물러 있는 시간을 두고 지켜볼 일이다. 아니 그보다 문화적으로 긴 겨울을 보내고 있는 경제한국은 '문화의 세기'에 어디서 참조적 에너지가 공급받을 것인가 고민하는 것이 더 급한 일이 아닐까?

방일권

(리서아 학술원 석사연구사 박사)

페루 대통령 선거

민중의 합성이 독재를 이겼다!

"민중의 합성이 독재를 이겼다"

페루의 야당 알레한드로 톨레도(Alejandro Toledo)후보가 지난 4월 9일 있었던 1차 투표 결과 누구도 50% 지지를 받지 못해 2차 결선투표를 한다는 선거관리위원회의 발표를 듣고 그의 지지자들 앞에서 함성을 올렸다.

결리는 96년 의회가 한때로 금지되어 있는 대통령 3선 연임을 고교해 해석하여 후지모리(Alberto Fujimori)가 대선 출마에 가능하다는 헌법수정안을 통과시키면서, 그리고 가까이는 1999년 12월 27일 후지모리가 2000년 4월 대통령선거에 나섰다고 공표하면서 페루의 대통령 선거는 페루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 관심사가 되었다.

한국 언론들도 4월 9일 페루 대통령 선거를 전후해서 매일 페루의 현지 상황을 연일 보도했다.

후지모리의 권력아욕

이번 페루 사태에서 후지모리가 가장 큰 손실을 입었다. 그는 국내의 야당, 학생, 노동자들의 '후지모리 하야' '후지모리 독재반대'의 강한 저항을 받았고, 국제적으로는 미국을 비롯한 각국의 공정선거에 대한 심의를 받고 '별'을 당하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은 후지모리의 무한 권력추구에 있어 기인된 것이다.

후지모리는 1990-1995년 제1임기를 마친 권력의 연장을 꾀했는데 그의 집권연장에 최대의 걸림돌은 대통령의 연임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 조항이었다. 이에 후지모리는 1999년 12월 31일 헌법을 개정하여 1회 연임을 허용한다고 개정하고 재집권에 성공했다.

후지모리는 그의 임기가 끝나는 2000년에 다 기오자 또다시 집권을 연장하려는 작업을 한다. 이를 위해 이미 그는 1996년 집권당인 '개혁'이 과반수 이상을 점하고 있는 의회에서 '후지모리가 2000년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헌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 당시 의회 해석은 1998년 헌법이 개정되었

기 때문에 1990년 임기는 소급 적용되지 않고 개정헌법하에 시행된 1995년 대통령선거가 헌법에 부어된 재임기간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2000년 선거에 나가더라도 2회 연임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 헌법해석안을 바탕으로 후지모리는 1997년 12월 27년 '경제개혁 지속', '일자리 창출'을 주요 이슈로 들면서 2000년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선포했다.

후지모리의 무리한 선거부담과 톨레도의 부상

후지모리는 부정부패의 경제적 성과가 효력을 잃으면서 근대 2대는 경제불황과 대량실업에 시달리고 있었다. 따라서 후지모리는 일련의 선거부담이라는 약속을 뒤집어 집권연장을 무리하게 추구하였다.

대통령 사임 및 개헌 보편 다음과 같다. 먼저, 후지모리 집권은 대선후보 등록에 필요한 100만명의 지지서명을 받는 과정에서 사인 조작 등의 방법으로 '페루2000' 선거인 명부에 등록했다. 이 부정이 밝혀지면서 후지모리 지지도는 급격히 하락되었고, 국제적 선거 감시의 눈도 집중되었다. 또한 후지모리는 국가정보국인 알라미라로 몬테시노스를 통해 군경을 동원한 공작정치를 통해 재집권에 성공하려고 했다. 그러나 이는 군부와 경찰들의 반발을 샀다.

이번 선거를 통해 '페루 가능성' 정당의 알레한드로 톨레도 후보가 급부상했다. 인구의 82%를 점하는 인디오와 메스티조들이 절대다수인 시달리는 자신들의 문제 해결책으로 톨레도를 지지했다.

톨레도는 이미 1995년 대통령 선거에서 출마했지만 그때는 겨우 4위에 못 미치는 득표율로 4위를 차지하는데 그쳤다. 톨레도의 인디오 혼혈이라는 이미지가 국제사회에서 요인인 선거경쟁에서 상대성이다. 즉, 96년 선거시에는 후지모리의 경제사회적 정책들이 긍정적 효과

를 발휘하고 있었기 때문에 페루 유권자들은 야당인인 후지모리에서 그들의 희망을 찾고자 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대안책이 부각되기는 어렵다. 그러나 2000년 선거를 앞두고는 그동안 경제개혁 과정에서 전담되었던 전담비용에다가 실업과 경제악화가 겹치면서 유권자들이 인디오인 톨레도에게서 그들의 희망을 찾고자 하겠다고 보여진다.

국제적 압력, 글로벌 시대

이번 2000년 페루의 대통령 선거는 매우 높은 국제적 관심 속에서 진행되었다. 미국을 필두로 한 세계 국가들의 관심은 페루의 대통령 선거 자체에도 커다란 영향력을 발휘했던 것으로 보인다. 즉, 선거과정에서 국제 선거감시인단의 활동, 개표과정에서 보여준 미국의 잇달은 압력 등은 후지모리에 의한 부정선거 가능성을 축소시켰을 것이다.

미국 정부는 29일 후지모리 정부에 보다 공정한 선거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또한 개표과정에서 보여준 감시인단은 3월 30일 페루 선거는 불법으로, 이것이 지속되면 선거과정의 불법성으로 후지모리 3선에 성공해도 정통성 문제가 심각할 것이라는 취지의 압력을 행사했다. 특히 후지모리에 대한 압력은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개표되는 상황에서 집중되었다.

존 해럴드 미국대사는 "미국은 페루 국내의 선거감시단 집계를 크게 신뢰하고 있으며 결선투표가 이루어지기 기대한다"고 노골적으로 결선투표를 요구했다. 후지모리는 이에 대해 "나를 낙선시키려는 국제적 음모가 있다"고 맞섰다.

반 후지모리 저항과 결선투표

국내의 국제적 압력 속에서 페루 선거관리위원회는 12일 97.68% 개표된 결과 후지모리가 48.89%, 톨레도가 40.31% 득표했다고 발표하면서 2차 투표를 개표했다. 후지모리의 50% 이상 득표는 불가능하므로 대통령 결선투표에서 산출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제 페루는 선거법 규정에 따라 2개월 안에 후지모리와 톨레도 양자가 재대결하는 결선투표를 치러야 한다. 이번 1차 선거과정에서 후지모리가 일련의 부정행위로 이미지에 상처를 받은 반면, 톨레도의 지지는 더욱더 높아졌고 탈락한 대선후보들이 모두 톨레도를 지지한다고 선언한 상황으로 볼 때 페루는 1821년 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한 이래 처음으로 원주민 대통령을 맞이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진다.

국제대선
NGO 시위 ... 워싱턴 긴장 고조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 연례총회와 '전통'을 의지한 산발적 시위가 지난 15일(토) 미국 워싱턴에서 대규모로 진행됐다. 선진국(G7) 재무장관회담이 진행중인 통화기금 본부 건물 앞에서 시위를 벌인 60여명의 시위대가 그 지역을 떠나려 할 때 갑자기 체포작정을 벌여 대대적인 스물바스에 실어 연행됐다. 이에 '시위대가 허가없이 행진을 벌였으며 인도로 행진하려는 경찰의 명령을 무시했다'고 테네스주지사 데이비드 블레이크는 체포사유를 밝혔다. '반 통화기금' 시위를 조직하는 단체들의 대변인인 에델 에임링가는 "경찰이 우리 발목을 잡기 위해 온갖 짓을 다한다"고 비판하며 여러차례 시위장면을 다뤘었다. 이번 대규모 시위의 최대 이슈인 최빈곤 문제 경찰관과 관료에 미국의 시사주지(타임) 최빈곤은 아프리카 대륙의 나라들이 국제금융기구에 지고 있는 부채의 총액은 무려 2,000억달러에 이르는 가난한 나라들의 국제통화기금 부채 내용을 자세히 보도하기도 했다.

77그룹, '아바나 선언'

77그룹 정상회의에서(South Summit) 지역차원의 남북정책 증진, 남북 민간경제 협력, 세계 연대기금 창설, 유엔의 역할 강화 등을 강력히 촉구하는 '아바나 선언'을 14일(토) 쿠바의 수도 아바나에서 발표했다. 또한 발전경제 추방 이후 미국 등을 중심으로 한 경제국들에 의한 세계와 정책 속에서 개도국의 주변화와 경제적 취약성을 강조한 뒤 '세계연대기금(World Solidarity Fund)' 설치, 다자간 무역체제의 대(對)개도국 특별대화, 외채탕감을 통해 유엔에 강력히 요구했다. 이와관련 남북관계 개선을 연구하기 위한 고위차문교를 설치, 개도국 연 구기관인 네트워킹 확대, 세계은행을 증진하기 위한 신탁기금 및 컨소시엄 설치, 2008년 남북협력 고위회담 개최 등의 결의사항이 담긴 행동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아바나 회의에서 의결된 사항들은 유엔의 오키나와에서 열리는 산전집단 7개국(G7) 정상회담에 전달하고 오는 2000년에 77그룹 정상회의를 다시 열기로 합의했다.

수도에 인상, 볼리비아 총파업

볼리비아 최대 노조가 정부의 수도에 인상 방지에 전면적 대정부 무령을 진행하고 있어 세계의 주목을 끌고 있다. 지난 9일 수도세 20% 인상으로 인해 전국적인 시위가 발생, 이에 따라 볼리비아 정부는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해 사태를 진압할 수 없이 이어지고 있다. 이 에따라 노동자, 농민, 볼리비아 로마 카톨릭교회, 지방관리 등으로 구성된 시위대 대표와 정부 대표들은 지난 10일 '수도세 인상방지를 철회하며, 체포된 시위주동자 2명을 석방한다'고 합의했다. 그러나 '볼리비아농촌노동자연맹(CSUTCB)' 간부인 알베르토 사바라는 정부가 국가비상사태를 해제하지 않고 있었다며 구속된 CSUTCB 대표를 석방하지 않고 있어 정부와 13일간의 협상을 중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와 노동자, 농민 대표와의 협상도 중단된 상태이다.



후지모리 3선 출마를 반대하는 시위 장면이다.



절대다수인 시달리는 인디오계통의 이미지를 부각시켜 지지도를 높인 톨레도 후보

박병수

(우리학교 대학원 국제관계학과 수료)

제1차 사이버 대전

실력있는 애들은 다 모여봐!

여기에 대학친구가 준비되어있어...

와!! 1억원의 창업자금지원(벤처부문), 등록금, 최고급노트북까지...

자세한 내용은 <http://www.dw-mart.co.kr>

주최: 대우 협찬: (주)엠제이 월드 · WIZGOTE

문의 및 접수: 홈페이지 (<http://www.dw-mart.co.kr>) 또는 02-759-3959(비독/포커대회 부문) 759-3955(홈페이지 부문) 759-2328(벤처부문)

제1회 대학생 사이버문화 페스티벌

온라인 바둑대회

접수기간: 4월 6일(목) ~ 4월 24일(월)
참가비: 1만원 (대우 인터넷쇼핑몰 마일리지로 2천원 환급)
시상내역: 1위(1명) 1년 등록금, 최고급사양 노트북
2위(1명) 1학기 등록금, 최고급사양 노트북
3위, 4위 (21명) 최고급사양 노트북

온라인 포커대회

접수기간: 4월 6일(목) ~ 4월 24일(월)
참가비: 1만원 (대우 인터넷쇼핑몰 마일리지로 2천원 환급)
시상내역: 1위(1명) 1년 등록금, 최고급사양 노트북
2위(1명) 1학기 등록금, 최고급사양 노트북
3위, 4위 (21명) 최고급사양 노트북

홈페이지 경연대회

접수기간: 5월 1일(월) ~ 5월 10일(수)
주제: 연예인 홈페이지 또는 관련된 사육육성에 관한 내용
시상내역: 상장, 상금, 1학년 등록금, 노트북 등

벤처창업아이디어 공모전

접수기간: 3월 1일(수) ~ 5월 20일(토)
공모내용: 정보통신 분야
-멀티미디어, 인터넷, 정보통신서비스(IP, D.S, B.S, 등),
-일반컴퓨터 Software, 기기 및 부품 등
시상내역: 우수작에 창업자금 1 억원 지원
접수방법: E-mail(hkkm7@daewoo.dwc.co.kr)

외대학보 741



통일을 위한 정치적 과제

“김정일 국방위원장님 부디 건강하십시오”
한 주간지에서 남북 정상회담이 성사되기를 열망하면서 내건 광고 문구이다.
역사적인 첫 남북 정상회담(최고위급회담)의 성사를 눈앞에 두고 있다.
한국전쟁이후 회담의 제의는 많았으나 실제로 성사된 적은 없다. 4대 김일성-정권 시절 남북 정상회담에 남, 북이 서로 합의하여 국민들에게 많은 희망을 안겨 주었으나 갑작스런 김일성 주석의 사망으로 회담이 결렬되었었다. 이에 이번 회담의 성사 여부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이번에 이루어지는 남북 정상회담은 한국전쟁이 50주년이 되는 해에 이루어지는 만큼 그 의미는 크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이번 남북정상회담을 남, 북간의 교류도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리고 이로 인해 민족의 숙원인 통일이 한 걸음 더 앞당겨 질 수 있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도 많다.
그러나 아직도 남한에는 통일을 위해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이 있다. 우선 북을 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국가보안법과 북한에 계속적으로 위협을 가하며 남한의 군대와 훈련을 하고 있는 주한미군 문제 그리고 평화정착을 통일을 하기 위해서 우선시 되어야 할 북미 평화협정 체결 등 많은 점들이 현재 남한 사회 내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국가보안법은 남한에서의 민간 통일운동들을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이다.
국가보안법상 북은 ‘적’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남과 북은 서로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는 것에 정면으로 대립된다. 국가보안법에 따르면 남북간의 왕래나 접촉, 교류는 잠입탈출죄, 회합통신죄에 해당하여 처벌을 받게된다. 이처럼 국가보안법은 민족공동체의 논리가 아니라 ‘북한에 이로움’은 남한에 ‘해롭다’는 논리에 서있기 때문에 민족의 단합, 단결은 커녕 분열과 적대를 만들고 있다. 이로 인해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등 통일운동 단체들이 이차단체로 규정되고 탄압을 받고 있는 것이다.
주한미군 철수의 문제는 한국전쟁 이후 남한에 미군이 주둔하면서부터 제기되었던 문제다. 현재 남한에는 4만명의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다. 용산 미8군 기지를 비롯하여 전국에 121개의 기지를 가지고 있다. 이 자체만으로도 북한에게는 많은 위협을 주고 있다. 게다가 남한의 군대, 일본의 자위대와 함께 전쟁 후원을 진행하며 북한을 압박하고 있다.
또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르면 북한에서 무력공격이 있다고 미국이 독자적으로 판단하게 되면 미군은 남한의 허가 없이 독자적인 군사 행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이처럼 주한미군은 남한에 주둔한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북을 압박하고 있고 언제든지 전쟁의 위협을 주고 있기 때문에 남북간의 평화통일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북한과 미국간의 평화협정 체결은 남, 북이 통일을 하는데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라 할 수 있다. 한국전쟁정지 협정을 체결한 당시에는 남한과 북한이 아니라 북한과 미국이었다. 또한 당시 체결했던 협정은 정전협정이 아닌 휴전협정이었기 때문에 어느 한 쪽에서 선전포고나 적대적 행위를 한다면 언제든지 전쟁은 일어날 수 있다.
또한 남한과 북한의 감시를 위해 스페인과 스위스, 체코슬로바키아 그리고 폴란드도 구성되어 있던 ‘중립국 감시위원회(중감위)’에서 9년 체코와 슬로바키아가 분할되고 95년 3월 폴란드마저 중립위에서 탈퇴함에 따라 실질적으로 이를 담당할 기구가 없어져 새로운 조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처럼 국가보안법과 주한미군 그리고 북미 평화협정 체결 등 많은 문제가 현재 남한에서 통일을 가로막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50년만의 첫 남북정상회담이 통일을 위한 좀더 발전적인 내용으로 논의되기 위해서는 우선 이러한 남한에서 통일을 가로막고 있는 문제점들을 해결해야 할 것이다.

해외 각국의 동향

미국 미국의 입장은 남북 관계와 북미 관계가 상호 배타적이거나 부정적인 관계가 아니라 상생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관계이므로 남북관계가 잘 풀리면 북미관계도 잘 풀리고 또 북미관계가 잘 풀리면 남북관계의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는 것이 주조이다.
빌 클린턴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남북한이 “오는 해에 처음으로 역사적인 정상회담을 갖기로 했다는 발표를 환영한다.”며 “남북한의 직접대화는 미국이 오랫동안 지지해온 것이며 한반도 문제 해결의 기초”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매들린 올브라이트 국무장관도 이장민 외교통상부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미국의 강력한 지지를 전달하는 한편 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해 한국과 입장을 조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고위급 북한관리의 미국 방문을 위한 준비 회담과 핵합성 및 미사일 협상을 마크와 진행하기로 했지만 최근 북일수교협상까지 재개한 마당에 남북 정상회담까지 치르려면 아무리 북한이 라 해도 받아 놓을 것이 너무 많은 게 아니냐는 분석도 조심스레 나오고 있다.
한편, 정상회담 개최 합의의 계기로 주한미군이 어떤 조치를 취할 계획이 있는지는 질문에 “북한이 주한미군 문제에 대한 논의를 모색해 왔고 우리도 어떤 문제든 다룰 태세가 되어있으나 주한미군의 위상에 변화를 주려는 계획은 없다”고 대답한 대목도 눈여겨 볼 만하다.

일본 일본 주요 언론들은 10일 석간에서 남북정상회담 소식을 대서 특필 한데 이어 11일 조간에도 사설과 특집들을 통해 한반도 분단사에 있어서 큰 획을 긋는 사건으로 규정하고 회담의 성공을 위해서 위해서 남북한국이 신중하게 준비를 서둘러 주도록 당부하고 있다.
일본측은 총체적인 면에서는 이같이 환영과 기대감의 일색인 것이다. 그러나 각론에 들어가서는 조심스러운 대응과 관측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제기되고 있다 우선 한국이 추진하려는 대북 경제지원과 관련, 일본에서는 자국의 자원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취해야 한다는 시각이 있다. 알-북 교섭과 남북 경제협력을 기본적으로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별도로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국 중국은 남북 정상회담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다.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비로 중국의 안보와 경제성장과 개혁, 개방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중국의 관영 신화 통신은 남북 정상회담 관련기사를 10일 오전에만 평안과 서울발로 6차례나 긴급 기사 등으로 잇따라 보도해 정상회담에 커다란 비중을 두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국제적인 주요 사안이라도 이처럼 집중적으로 보도하기는 극히 이례적이다.

분석가들은 중국-대만도 최근 회담과 협력을 탐색해야 하는 시기에 접어든 상황에서 남북정상회담 소식이 전제적 양안 관계전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같은 분단국가인 대만과 긴장완화에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양안관계는 1개 중국 원칙과 지도자의 호칭 등 또다른 문제들이 걸려 있어 회담성사 여부를 예측하기가 극히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U EU는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 남북한 대화와 함께 미국과 일본 등 서방세계와 북한간 대화가 중요하며 북한이 대화에 적극 응해야 한다는 서방측 인식을 공유해 왔다.

EU는 성명을 발표해 한반도 긴장완화와 경제안정을 위해 북한이 북미 고위급 회담에도 응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으며 남북한 직접대화와 북미 고위급 회담에 대한 북한의 건설적 자세가 북한과 EU의 관계 발전에 긴요하다고 밝혔다.

EU의 이 같은 입장은 북한의 국제사회 참여를 유도하고 상호의존정착의 토대를 닦기 위한 정치대화를 지난 90년부터 해마다 한두차례씩 갖고온 전통을 본색하지 않은 데서 뚜렷이 드러난다.

이는 남북한 관계 및 북미관계의 발전에 상응해 북한과의 관계를 정립해 나갔다는 방침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다. EU는 북미 고위급 회담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상회담이 합의된 것은 한반도 내의 경제 발전과 통일이 가능한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사취부

독정부는 이 요구를 받아들지도 못했다.

뿐만 아니라 정상회담의 우호적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상호 신뢰를 쌓는 국내외적 조치를 지향적으로 취했다. 그 예로 서독은 1969년 11월 28일 베를린금지조약에 서명하였다.

남북한의 경우에도 정상회담예비회담에서 충분히 사전 의견조정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였다. 그 예로 남북기본합의서가 채택됐음에도 불구하고 양측의 법제도는 냉전논리를 벗어나지 않고 상대방을 적대시하고 있다. 정상회담 전에 쌍방은 정상회담의 우호적인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상호를 적대시 하는 관련 법률을 과감히 개폐하는 작업에 예비회담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 우리는 이 정상회담에 대한 국내의 적 공간에 확산에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안으로는 야당과 국회 그리고 시민단체에 공식적으로 그 과정을 투명하게 보고를 하고 그들의 견해를 적극 수렴하는 겸허한 자세를 보여 할 것이다.

대외적으로는 미국과 일본 등 많은 우방국들과 긴밀한 협조 체계를 가져야 할 것이다.

1970년 동서독 정상회담의 경우에도 개최 전에 브란트 수상은 연방의 회에서 그 회담의 취지를 충분히 설명하고 국회의 지지를 받았고 회담 후에도 연방의회에 보고하여 야당을 포함한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리고 브란트 수상은 서방 미국, 영국, 프랑스 3개국 협의체와도 충분히 설명을 하여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했다.

끝으로 구체적으로 고려해야 할 요소로서 의제, 의전문제, 대표단 구성문제에서 남북관계가 남북기본합의서 전문에 명시한 것처럼 ‘나라와 나라사이의 관계가 아닌 평화통일로 가기 위한 정치적

특수관계인 점’을 충분히 감안하여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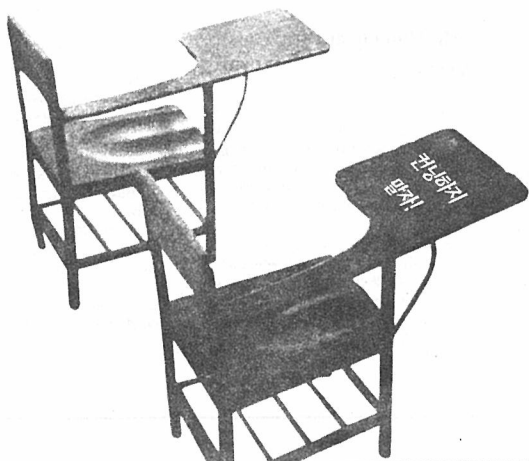
어려운 상대인 북한을 이미 섬득하였고, 국제사회의 지지도 이미 받았다. 남은 일은 우리 내부의 국민의 절대적인 지지와 언론의 민족화해지향적 보도태도가 매우 필요하다.

물론 발표시기가 총선일에 임박한 민감한 시기라는 점에서 일부의 비판은 이해가 간다. 그러나 이번 정상회담이 갖는 민족적 역사적 의미와 큰 대외의 성사를 위해 여야 모두 대승적 차원에서 초당적으로 적극 협력해야 할 것이다.

이장희
(국제법 교수)



책상의 존재 이유



새내기 첫 시험 체형기
첫 시험에 임하면서...
두근두근 떨리는 마음으로 들어간 강의실엔
벽, 책상, 의자, 심지어 바닥까지
구석구석 세밀하게 썩여진 ‘친인’ 거라들이 가득했다.
어느나라 언어인지 알 수 없는 문자들, 수학공식, 그림도면까지...
여기저기 널려있는 글자들이
꼭 널부러진 우리 양심같이 정말 쑥쑥했다.
아... 내가 꿈꾸던 대학시험은 이게 아닌데...

민족주주론
외대학보



새음바 소개 - '안치환 6.5 리듬바- 나와 함께 모든 노래가 사라진다'

안치환에게 김남주를 다시 듣는다

시인보다 혁명가로 불리길 원했던 '남민전 전사' 고 김남주 시인. 1979년 말 남민전 사건으로 투옥돼 88년 특사를 받기 전까지 9년 3개월간 투옥생활을 한 뒤 출소했지만 해방당 무명 끝에 94년 세상을 떠났다.

유종집행이 허락되지 않던 시절 그가 1.5명의 감옥에서 우유리와 휴지 등에 숨겨왔던 뜻으로 새긴 시들이 오늘날 안치환의 감성과 더해져 시집속의 글자가 아닌 음악이라는 다른 장르로 우리에게 다시 다가왔다.

'노래로 만나는 안치환과 김남주'.

안치환은 80년대 우리나라 민중가요계를 주도 해온 노래 운동가 가운데 한 명. 80년대 '술이 술이 푸르른 술이'로 출발, 90년대에는 '내가 만일' '사랑이 꽃보다 아름다워' 같은 대중적인 음악을 동시에 추구하며 한국곡과 포크음악을 이끌었다.

그가 이끄는 고 김남주 시인의 시에 곡을 붙인 노래들로 꾸민 기획 앨범 '안치환 6.5 리듬바- 나와 함께 모든 노래가 사라진다'를 가지고 안치환이 아닌 시인 김남주로 무대위에 올랐다.

안치환이 김남주 시인과 인연을 맺은 것은 80년대 초, 옥중시 '저 창살에 햇살이'를 시작으로

로 김남주 시인의 '자유'를 담은 3집 앨범은 민중사에 특목시인 90년대 대표 음반으로 평가받고 있다. '나의 19년 음악생활에 있어 김남주 시인의 시는 힘주고 지쳤을 때 정제성을 부여주고 어떤 노래를 불러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길잡이였다'는 게 안치환씨의 설명.

"그동안 각 앨범에 한두곡씩 김남주 시인의 시에 곡을 붙여 노래를 만들어왔다. 그러나 이번 음반은 김남주 시인의 시로만 만든 김남주 시인에게 바치는 헌정 앨범이다"고 안치환씨는 말했다. 앨범이름도 'Remember', 김남주시인을 기억하라는 뜻이라고 한다.

앨범을 살펴보면, 평지리 연주가 돋보이는 풍자곡 '평지리와 인간', 동료 후배인 이장삼, 송봉주가 함께 참여한 '저는 이제 풀이거든', 김남주 시인의 서정적인 모습을 엿볼 수 있는 '산국대' 등 신곡 3곡과, '저 창살에 햇살이', '물따라 나도 가버선', '3.8선은 3.8선'만 있는 것이 아니다 등 기존 발표곡 7곡, 그리고 김남주 시인의 육성 남송을 포함해 모두 13곡이 수록됐다.

"평지리 종이 많이 쌓인 곳에 가서/봉봉거리며 산다/그곳이 어디던 시골이던 오솔마가

/산골이었다/보라/인간은 돈이 많이 쌓인 곳에 가서/봉봉거리며 무리져 산다/그곳이 어디던 시골이던 오솔마가/평지리 연주가 돋보이는 풍자곡이다"고 안치환씨는 설명했다.

반면 '저는 이제 풀이거든'과 '산국대'는 애뜻함과 슬픔을 배어 서정시들이다.

그러나 워낙이해도 이런 앨범에서 귀를 사로잡는 것은 김남주 시인의 육성남송으로 시작해 안치환의 노래로 이어지는 '자유'라는 곡이다.

"노래를 만들어 김남주 시인의 시를 많이 보게 된다. 일련연에 읽어도 실린전에 읽어도 남지 않았고 그 시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삶의 의미를 묻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그것은 '고정'이지 '알음'이"라고 말하는 안치환씨는 "김남주 시인의 시는 감인함과 함께 따스함이 있다. 그는 혁명 시인이자 서정시인이자"라고 김남주와 그의 시를 평가한다.

이번 음반은 안치환씨에게는 15년전 불려온 자기 노래의 내용을 정리했다는 의미가 크다.

연세대학교 시절 '물리력'라는 노래에서 노래를 시작한 것. '내중이요'란 알고지내던 나에게 노래에 활동은 문화적 충격이었다고 안치환씨는 노래활동을 시작할 때의 기억을 더듬었다. '내와 노래에 활동은 내 노래에 대한 생각, 세계관을 정리시켜 준 큰 밑거름이었다'고 전한다. 뒤돌아보면 그가 창작 노래에 담고자 했던 게 바로 김남주 시인의 시였다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닐 것이다.

"대학때는 오직 노래가 좋아서 썼었고, 그때와 달랐다. 점이 있다면 지금은 조금의 직업의식이 생긴 것, 하지만 노래에 대한 자세와 생각은 대학노래를 처음 시작했던 그때의 열정과 순수를 지켜가고 노력한다"고 안치환씨는 노래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안치환의 삶이고 힘있는 목소리로 들려오는 문학과가 가슴을 울리는 80년대를 대표하는 김남주의 삶과 문학을 이기.

김남주가 지난 지 7년이 지난 오늘, 안치환을 통해 더 큰 생명력으로 그를 새롭게 만나 볼 수 있을 것이다.

윤홍은 기자 happyend21@hanmail.net

김남주 시인 알아보기



김남주
1946년 전남 해남에서 태어났다. 전남대 영문과에 입학하여 3년제인 반민중과 교원반대에 들어 주도적으로 참여하면서 반독재 민주화투쟁에 앞장섰다. 이후 고향 해남에서 농민문제에 깊은 관심을 쏟기 시작했으며 1974년 '창작과 비평' 여름호에 '햇바미' 등을 발표하여 문단에 나왔다.

1979년 남민전 사건으로 15년 형을 선고받았고 그 다음해 1988년 12월 가석방조치로 출소했다. 그 다음해 1989년 1월에는 고은 시인의 주례로 그의 오랜 동지이자 약혼자였던 박광숙과 결혼했으며 열정적인 시작활동을 보여줬다. 그러나 김남주 시인은 94년 2월 13일 그가 숨을 거두면서 끝나고 말았다.

그의 작품으로는 1984년에 첫집집 '진혼가'에 이어 '나의 할 나와 피', '조국은 하느님', '술직히 말하자', 시집집 '사랑의 무기', 번역서 '자기의 땅에서 유배당한 자들(프란츠 파농)', '아타 트롤(하하네)' 등이 있다.

저 창살에 햇살이 1,2

1973년 3월부터 12월까지, 1979년 말부터 1988년 말까지 10년간 '형식' 지 사단 및 남민전 사건으로 투옥되었을 당시 광주교도소와 전주교도소에서 써낸 300여 편의 시들을 모두 모아 주재별로 엮은 이 전집은 80년대 민중시의 절정을 보여준다.

시인이 간혀 있던 동안 여기저기서 활자화 된 시들을 출옥 후 자신의 손으로 오자, 표현, 구성 등을 일일이 바로잡아 내용은 옥중시의 정본이다.

사상의 거처

80년대를 옥중에서 보낸 대표적 저항시인 김남주의 위상을 보여주는 문제 시집. 자본주의의 전지구화 추세 속에서 우리가 잃어버린 이상적 공동체의 꿈과, 이미 파괴된 농촌 공동체의 비극을 특유의 시적 진경으로 형상화 한다.

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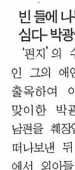
한 사람의 편지가 위대할 수 있는 경우는 실로 드물다. 아니 그걸 오직 한가지 뿐이다. 그가 쓴 연서가 만인을 위한 것이었음을 따라야만 가능하다. '햇바미' 최고의 연서'라는 부제가 붙은 김남주 옥중서간집 '편지'는 우리 서간문학의 한 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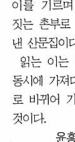
발이다. 그의 애인인 박광숙에게 보내는 편지로 엮은 이 책은, 불후의 기록문학으로 남을 실존적 고백과 사랑과 자유에 대한 연서로 오직 정의를 향해 완결된 진정한 한 열혼의, 불멸의 아름다운 기록으로 기록 차



있다. 0.6%에도 미치지 못하는 종이 한 장, 바로 편지로 천천히 살아내려는 10년 옥살이를 문학적으로 승화시켰다.



빈 들에 나무를 심다-박광숙
'편지'의 수신자인 그의 애인이자 출옥하여 아내로 맞이한 박광숙이 남편을 해방으로 만나보낸 뒤 감옥에서 아이를 토일 기르며 농사 짓는 혼부부 보낸 다섯해의 시간을 깨어낸 산문집이다.



읽는 이는 이 책에서 역사의 개인과 삶의 통시에 가져다온 질감이 오히려 회상의 디딤돌로 바뀌어 가는 과정을 감동적으로 깨닫게 될 것이다.

윤홍은 기자 happyend21@hanmail.net

대인이 외대인에게

서울배움터 법학과 '법률'

안녕하세요?

저는 정의가 살아숨쉬는 법과대학을 배우는 법학과 법학박사 박윤미입니다.

세네가 맞이하느라 분주했던 3월이 어느새 지나가고 지금은 따스한 봄의 기운이 완연히 느껴집니다. 이제와 학기초의 들뜬 기분은 가라앉고 대학 생활의 진정한 의미를 생각해 보아야 할 때입니다. 이를 위해서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이며, 어떻게 그 일을 해나갈 것인가를 고민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법학은 99년 초에 창립되어 지금까지 많은 학내 집회, 교내외의 행사에서 학우들을 만나왔습니다. 법학은 '법률'이라는 문명의 한 갈래를 학우들에게 알기위해 보여주고 느끼게하는 역할을 합니다. 법률이 하는 일은 어떠한 의식이 담겨있는 문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률의 매개는 바로 민중가요입니다. 민중가요에 담겨있는 민중의 애환, 혹은 사회의 모순과 부조리를 직접 느끼고 그 안

에 담긴 생각과 의미를 찾아내어 표현하는 것이 법률가의 할 일입니다.

법률이 외식이 담긴 문헌을 표현해내는 자라는 정기총회나 해오름식 등의 법대 행사와 대중제 그리고 세대의 공연, 학교 내의 집회에 있어서의 중앙 문예관 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전에 비해 학생들의 열정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고, 직접 참여하고 싶어하는 학생들 또한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함께 뛰고 어우러지는 대의장을 마련하기 위해 애써왔던 저희로서는 매우 기쁜 일입니다. 저희는 각 단체 단위의 열정을 뿐만 아니라 일반 학우들에게도 열정이 널리 퍼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학 패원들의 대학생활에 있어 진정한 자아찾기는 법률과 함께 하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게 아닐까요? 언제 어디서나 서로 통할 수 있는 개성있는 문헌이 학우들과 함께하는 법률로 거듭나겠습니다.



박윤미
(법·법학 2)

공연안내

팩트 뮤지컬

예술의 전당 오페라극장에서 미국 뮤지컬의 본령이라 할 수 있는 [팩트 뮤지컬]의 결성단이 선보인다. 조지타운의 [고]와 [백스]로부터 마련한 내러티브 팩트 뮤지컬의 극치를 볼 수 있는 쇼위 [듣기]는 쉽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대중의 흥미를 끌고 있다. 뉴욕을 배경으로 가네 문학사회의 개인의 가치와 소멸되는 각박한 삶의 현상에 사는 우리 모두가 무대위의 인물과 일치하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

매: 4월(금)~4월(일)
평일·토요일 4시, 7시 30분
일요일 3시, 6시 30분
(일요일 공연없음)
장소: 예술의 전당 오페라극장

일간스포츠 제정



디지털임팩트



international six's soccer

논스톱 서바이벌 시커

인조 미니축구대회



참가자격 전국거주 고교, 대학생 및 일반인 (대한축구협회 등록선수 제외, 단 어지는 가능)	
참가비 팀당 10만원 (상세보험 가입비포함) 접수한 참가비는 반환하지 않음	
참가신청기간 1. 참가비 접수: 팀 참가비 10만원을 제출하면 215-20-242858 (주)스타돔 엔터테인먼트로 입금. (무통장입금용 보판) 2. 참가비 접수: 02-518-7512로 전화해서 참가신청. (인터넷 접수: www.impact.co.kr) 3. 참가비 발송: 참가신청하신 팀대표자에게 대회신청서와 대회요강, 대진표등이 포함된 참가비를 발송. 4. 참가비 입금: 참가비를 입금한 후 참가비금고로 대회신청서를 발송하면 참가비금고로 입금. (참가비금고로 입금한 참가비는 대회 당일 반환)	
참가방법 1. 팀당 10명씩 5팀 2. 팀당 주전 6명, 후보 2명 3. 전후반 각 10분 4. 일반 축구공, 축구화 착용 (대신 참가규정은 홈페이지 참조)	
참가대상 5월 5일 예선경기, 아티스트를 위한 이벤트 마련 (아티스트는 본문을 위해 아티스트 캠프에 참석하지 않습니다) 5월 6일 오찬은 대학팀 예선경기 5월 7일 오찬은 고교 및 일반팀 예선경기 5월 7일 결승전 및 결선 토너먼트	
시상내역 1. 단체상 상금 100만원(NAT 포함), 컵기 상품권 100만원, 트로피 상금 50만원(NAT 포함), 컵기 상품권 70만원, 트로피 상금 30만원(NAT 포함), 컵기 상품권 50만원, 트로피 2. 개인상 최우수선수상 상금 100만원(NAT 포함), 컵기 상품권 50만원, 트로피 우수선수상 상금 100만원(NAT 포함), 컵기 상품권 30만원, 트로피 3. 기념품 - 참가자 전원에겐 참가기념품으로 증정	

• 참가신청기간: 4월 7일(금) ~ 4월 28일(금)
• 날짜: 5월 5일(금) ~ 7일(일) • 장소: 서울산업대학교, 보라매공원

▶ 우승팀은 KBS "수퍼 TV 일요일은 즐거워-출발 드림팀"과 대결 예정 ▶ 주요경기 인터넷 생중계 (www.sports01.com) ▶ 프로축구스타 싸인회 (대한화재컵 결과에 따라 선수선정)

• 주최: 일간스포츠, DIGITAL IMPACT 디지털 임팩트 • 주관: (주)스타돔 (www.stardome.co.kr), (주)스포츠제로원 닷컴 • 협찬: KIKI, estop, XXL • 문의: 02-518-7512

학술단신
22일, 대학원총학생회 후원
'4·13총선 관련 토론회 개최'

오는 22일(토) 오후 2시 예경총에서는 사단법인 참치시연연구소와 한국정치연구회가 주최하고 학술단체협의회와 대학원총학생회 후원하에 '4.13 총선, 시민·민중운동 그리고 한국민주주의'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진행됐다.

이번 토론회는 1부 부문 발제와 2부 종합토론으로 진행되며 1부 발제는 한국정치연구회 정영태 회장의 사회로 △4.13 총선결과와 분석(지역, 세대, 계층(급)을 중심으로) - 박성훈 한국정치연구회 연구위원의 발제와 강명세 서울연구소 연구위원의 토론 △총선시민주의 활동과 한국의 민주주의 - 정경우 상공대학교 교수의 발제와 신영웅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의 토론 △진보보장 운동의 의의와 향후 전망 - 조원현 한국정치연구회 연구위원의 발제와 김지식 참여연대 정책실장의 토론이 진행됐다.

이어 진행될 종합토론에서는 '보다 참여적인, 보다 실질적인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한 재언'이라는 주제의 기조 발제를 이화여대 김수진 정의와 교수가 진행할 것이며 유관순 헌법재판소 사회학과 교수, 박홍순 민주노동당 총선기획단 부단장등의 종합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에 대학원 총학생회는 "우리학교 내에서 많은 학술제가 있는 것이 안타깝다"고 하며 유관순 헌법재판소 사회학과 교수, 박홍순 민주노동당 총선기획단 부단장등의 종합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민중공대위, 반민공대위 열어

오는 19일(수) 오후 6시 민중의기본권보장위원회추진위원회(민중공대위)에서는 미군의 인권침해에 대한 인권보고서와 해결을 위한 공화회를 연대대학과 이화대학에서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는 매영림의 인권폭력, 고영재, 고 조준형 학생 등의 피해사례발표와 '주한미군 주둔의 부당성에 대한 역사적 고찰을 통한 북미평화협정 체결과 주한미군 철수의 정당성', 양민학살 진상규명 전 민족특별조사위원회(진민특위)의 역사적 의의의 주제발표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민중공대위 측은 "미군의 인권학살 문제, 미군이 주둔함으로써 생기는 문제들을 함께 나누고 이후 대책을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서양어대·한국스칸디나비아학회 초청강연 열려

우리학교 서양어학과 한국 스칸디나비아 학회의 합동 초청 강연회가 지난 3일(월) 교수회의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강연회는 '유럽 국유 기업의 등장과 유럽 연합(EU)의 관계(오스트리아 국유기업이 유럽연합에 미치는 영향)'를 주제로 스웨덴 쇠데르민 대학 정치학 교수로 재직중인 최현영 박사가 주제 발표를 진행했다.

한국역사연구회 제 70회 연구발표회 '4월민중항쟁과 민족통일론'

4·19혁명, 통일운동의 밑거름

"통일운동세력, 대중운동도 병행"



김지형
(경대대 강사)

경기에 집지형 강사는 "4월 민중항쟁기에서 학생들의 역할은 매우 컸다"고 말하고 "4.26이후부터 이듬해 5.16에 의해 4월 항쟁기가 강제적으로 종식되게까지, 학생운동의 주도세력인 학원민주화·국민계몽운동 세력과 민족통일운동 세력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며 4월 민중 항쟁기에 있어서의 학생운동에 대해 고찰했다.

김 강사는 "학원민주화·국민계몽운동은 시기적으로 볼 때, 4.26 이튿날 하야 직후로부터 그

해 말까지 활발하게 진행되었으며, 일부의 경우 이듬해까지 계속되기도 했다"고 밝히며 "국민계몽운동의 경우 학원이나 사회개혁을 내세웠던 학생들이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1960년대 후반부터 민족통일운동을 주도했던 진보적 학생들도 함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며 그 이유로 국민계몽운동의 중심이었던 '공공성' 추구전진위원회와 '학생특별위원회'에서 학생운동세력 민족통일운동을 주도했던 학생들도 있다는 점을 들었다.

그는 또 "이러한 것으로 보아 학원민주화운동과 국민계몽운동이 이후 전개된 학생운동의 대중적 기반을 일정정도 형성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역설했다.

또한 그는 "민족통일운동 세력은 단지 통일운동만이 아니라 대중운동의 큰 흐름에 있어서도 투쟁했다고"고 밝히고 그 예로 '반미경제협정 반대 투쟁'과 '2대법 반대 투쟁'을 들었다.

마지막으로 그는 맺음말을 통해 "5.16 군사쿠데타 이후 4월 항쟁이 학생운동의 세력은 두가지 길을 걸었다"고 말하며 그 두가지 길로 '체제를 인정하고 합류한 세력'과 '비타협적으로 탄압을 감수하면서 사회운동가의 길을 선택한 세력'으로 나누었다. 그리고 "남은 문제는 이 시기 학생운동 주도세력이 이후 한국현대사 속의 사회운동사에서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에 관한 좀더 면밀한 연구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자주 민주 통일이 통일의 기본원칙"



김보연
(한양대 박사과정)

한양대 박사과정에 있는 김보연씨는 "4월 민중항쟁기 남북협상론은 대표적 통일론 가운데 하나로 알려져 있다"며 발표를 시작했다.

김씨는 "남북협상론은 7.29 총선에서 제한적 의미의 남북교류의 주장이 제기된 이래 점차 남북협상론이라는 하나의 통일방안으로 그 내용을 체계화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준다"며 지금까지의 연구는 남북협상론이 제기한 통일원칙에만 초점이 맞춰져있어, 그것의 구체적인 통일방안에 대한 검토가 충분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4.19 직후부터 1960년 11월을 전후한 시기까지는 유엔강사와의 남북회담 추진론과 '중립화통일론'이 양대 축을 형성하고 논의가 진행되었으나 1960년 1월 이후 이러한 양대 구도에 남북협상론적 통일론이 가세하면서 상호 혼재되어 논쟁을 전개하는 양상을 띠었다"고 말하고 이후 논쟁을 거치면서 1961년 이후 남북협상론 주장이 본격 제기되기 시작했다고 발표했다.

그는 남북협상론의 특징에 대해 첫째 "남북협상론은 '반외세', '민족자주'의 문제를 전면에 재개하였다"고 말하고 이에 따라 우리민족이 주체적으로 민족통일을 이루기 위해 남북협상론을 제시하였다고 설명했다. 둘째, "남북협상론은 '자주 민주 평화'의 통일원칙을 중심으로 다양한 민족주의 세력을 하나로 집결한 대표적 통일론이었다"고 밝혔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영춘은 '조국통일의 기본방향'이라는 글을 통해 단계적 통일방안을 제시하고 단일민족이 서로 다른 체제인 경우 연방제가 현실적으로 가장 타당한 통일방안이라고 보았다"고 밝혔다.

김씨는 "자주 민주 통일은 남북안이 공히 인정한 통일의 기본정신으로 자리매김 해왔다"며 남북협상론은 이러한 통일원칙의 정당성을 확립시키는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역설했다.

"북한, 해방이후 동일한 통일노선"



한모니
(가톨릭대 석사수료)

가톨릭대 석사과정생이 마치고 한국역사연구회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는 한모니씨는 "북한은 해방이후 지금까지 동일한 통일정리노선을 유지하고 있지만 국내의 정세 변화와 남북관계에 따라 시기별로 다른 통일정책과 방안을 제시해 왔다"고 밝히고 1948~60년대 전반기는 총선거안 1960년대 중반~80년대까지는 총선거안과 연방제안 1990년대 이후에는 고려민주연방제 방안 등으로 나눌 수 있다고 말했다.

한씨는 북한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서"는 미군 철수가 전제되어야한다고 주장했다고 하며 "3.15 선거를 미수식 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여준다는 것이지만 이승만 정권의 몰락을 나타내는 증거라고 주장하였다"고 밝혔다.

한씨는 발표문을 통해 북한은 4월 항쟁의 주제제도와 관련된 학생운동적 성격보다는 '대중투쟁적 성격'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또한 "북한은 4월 민중항쟁을 미국의 식민주의 지배하에서 모순이 폭발된 것으로 이해하고 이승만 정권의 붕괴는 미국 식민주의 타격에 결정적인 타격을 준 반면, 이승만 투쟁에서의 첫승리로 규정하였다"고 한씨는 밝혔다.

한씨는 북한의 연방제 통일방안에 대해 "이를 본격적으로 검토한 것은 4월 민중항쟁 이후였고, 경제, 문화 등의 교류를 통해 북한에 대한 우호적인 분위기가 조성 등의 정치적 접근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연방제였다"고 주장했다. 이는 북한과 남한의 차이를 인식한 결과이며 자신의 체제에 대한 자신감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하고 당시 북한이 생각한 연방제는 통일의 완성체가 아닌 총선거안이 넘어가기 위한 과도기적인 연방제였다고 말했다.

그리고 남북 체제 및 상호 인식 차이가 점점 확대되면서 1970년대 이후 총선거안은 폐기되었고 연방제안이 고려민주연방제로 구체화 되었으며 1990년대 이후 고려민주연방제안은 곧 통일방안으로 주장되었다"고 역설했다.

종합토론

한국역사연구회 제 70회 연구발표회 '4월 민중항쟁론과 민족통일론'에서 모든 발제가 끝나고 이루어진 발제에 대한 종합토론에서 가톨릭대 안병욱 교수는 "한모니씨의 발표에서 쓰인 자료에 대해 객관적이고 신랄할 수 있는 자료를 인용했다"며 한씨의 자료의 신뢰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한씨는 "매우 조심스러운 부분이다. 북한에 대한 1차적인 자료들이 많이 없어 힘들었다"며 발표에 인용된 로동신문이나 중앙주체 소련대사관문서 그리고 북측에서 공식 발간된 자료들을 사용했다며 질문에 대한 답변을 했다.

이에 대해 사회를 맡은 박재관 서울대 강사는 "북한과 모두에서 공통되는 점 같다. 그렇지만 자료가 없다고 연구를 미룰 수는 없는 일"이라며 그에 대한 충분한 사료가 필요함을 지적했다.

자적했다. 또 김지형 경대대 강사의 발표에서 나온 '자유민주주의' 부분과 관련 질문에 대해 김씨는 "자유민주주의는 60년대 이후 사회주의 운동에서 있어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 했지만 4월 민중항쟁에 관련한 자료 어디에서도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내용은 찾을 수 없었다"고 답하고 "4월 항쟁의 시점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의미가 자유민주주의의 하나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것은 6.70년대 근근이 사회정세를 반영해서 나온 이야기"라고 답하고 주장했다.

이번 발표회는 4월 항쟁 40년을 기념하는 해에 진행되었고 또 한반도 다투지 않았던 주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라는 점에서 많은 관심을 모았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지 않은 가운데 토론이 진행되었고 또 토론도 활발히 진행되지 않아 아쉬움을 남겼다.

학술부

정부도 이적단체인가?

○... 통일운동하는 단체를 탄압하여 이적단체라고 규정하면 정부가 북한과 정상회담을 하려하자 본 크로니클을 생각하십 "정부도 오늘날부터 이적단체?" (박)

○... 국민의 무관심 속에 최자의 투표를 기록하며 차워진 4.13 총선. 이번 총선의 관건은 관공이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금권, 관공이 판을 친 선거였다고... 이에 검찰이 선거법 위반으로 70명을 입건하는 등 엄격히 단속하겠다고 하여 재선거가 치러질 지도 모른다고 한다. 이 소식을 들은 크로니클자 "그럼 재선거에서는 지역감정과 흑색비방선전도 엄격히 다뤄 주세요" (홍)

○... 페루의 후지모리 대통령이 헌법을 재해석해 독재를 시도하자, 이것을 본 크로니클자 생각하십 "독재에 항거, 슬라함 4·19운동, 페루에 항쟁한민 가이레소" (원)



○... 미국의 중시가 사상 최대의 하락률을 보이자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의 중시가 하락하고 있다는 데... 이에 크로니클자 하는 말 "오라! 진인사대천명인(盡人事聽天命)이구나" (황)

○... 현재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는 등록금 문제. 학내 구성원들이 이제는 대응방법을 터득할 듯 한데, 학교당국 "본인은 잊으의 대응하지 않는다", 서울대부터 총학생회 "문제는 있으나 해결책은 없다", 대다수의 학생들 "등록금은 냈으니 공부나 열심히 본인이 알아서 하자" (나식)

○... 학내 구성원들의 각기 다른 대응 속에서 놀부 클로니클자 이를 보고 한미니 수 있는 말이 "농부가 밭을 두고 밭지 않을 수 없는 땅이요, 밭은 거짓말을 안하니 사지 못할 것이며, 결국엔 자신이 막걸리 음식을 귀히 여겨지 않음은 부덕일 터인데..." (나식)

농부만 갈아라

비둘기철판

이문별

□ 알립니다

- 이태리과 4학년 선배님들 취업서열 추천합니다. 21일 금요일 5시에 하고요.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
- 연락처 : 019-210-9148 (이문별)
- 사범대 교양시, 소설, 4월말과 공모합니다. 교양민주와 주간에 전시할 것이고요. 교양에 관련된 내용으로 응모하시면 됩니다.
- 응모자격 : 사범대 학생 누구나입니다.
- 기간 : 5월 4일(목)까지 사범대 학생회실
- (사범대 학생회)
- 우리나라 운수우편인 킷복싱 동아리를 결성하고자 합니다. 관심있으신 분은 지금 연락주세요.(여학생도 OK)

연락처 : 912-4965 (킷복싱 동아리 준비중인 사람)

□ 합합니다

- 여자룸메이트 구합니다. 깨끗한 원룸에 도시기스 난방되고, 월세입니다. 016-373-0572로 연락주시고요. 전화로 받지 않아도 문자나 음성남겨 주세요.
- (룸메이트 구하는 사람)
- 찾습니다

 - 3월 30일 오전 운동장(7에서 열시 3개까지 키움터를 분실했습니다. 습득하신 분 011-9073-4653 로 연락주세요.
 - (연희원아바리 사람)
 - 4월 3일 도서관에서 빨간색 지갑을 잃어버렸습니다. 습득하신 분 011-9845-3985로 연락주세요.
 - (지갑잃어버린 사람)
 - 찾이게요

 - 붉은 광장에서 동근모양의 미피고 런던 시계를 습득했습니다. 주인은 016-447-6025로 연락주세요.
 - (시계주른 사람)

왕산골

□ 알립니다

- 서양 고전 감독들이 현대대생 철학학회에서 첫 번째 강화를 갖습니다.
- 참가방법 : 철학과 사무실 게시판에 있는 참가 신청서에 이름과 연락처를 적어 제출(4월 30일까지)
- 감독일정 : 5월 1일 늦은 7시 철학과에서 첫 모임
- 많은 학생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 (철학과 학생회)
- 한국 말레이·인도네시아 학회에서 2000년 춘계학술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 1부 : 등록 및 개회식 - 사회 : 우리학교 동남아 연구소 연구원 원순주
- 2부, 3부 : 논문발표 - 우리학교 마인어과 교수 정영관, 김병대
- 비둘기 철판의 문은 항상 열려있습니다. 알리고 싶은 것이 있으시면 이문·왕산 기자실로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주세요. 광고료는 받지 않습니다.
- 이문 학생기자실 학생회관 2층 961-4152, 4466 팩스 : 961-4183
- 왕산 학생기자실 학생회관 2층 (0335)330-4112, 4580

정치언론학부 교수 박성민

4부 : 종합 토론회 - 사회 : 부산외대 국제경영 지역대학원장 김수일

일시 : 2000년 4월 22일(토) 늦은 1시 30분

장소 : 교수회관 2층 강의실

(한국 말레이·인도네시아 학회)

- 스튜디오A에서 새내기를 모집합니다. 지원자격은 벤치가에 붙어 있는 사람이면 됩니다.
- 1등은 게임 전문채널, 2등은 게임제작, 3등은 LG.P입니다.
- 장소 : 학생회관 B10호
- 많이 많이 오세요.
- (스튜디오A)
- 찾습니다

 - 4월 7일 밤에 학생회관 313호, 그림사방방에서 열풍자를 잃어버렸습니다. 돌려주면 용서합니다. 꼭 돌려주세요.
 - (그림사방)

담사가 전라북도 일대를 다녀와서

시간과 공간을 넘나들며 보낸 사흘

1 사인 신동엽은 자신의 사에서 '월은 잡아오는 달'이라고 했다. 3월에 몸을 일으킨 봄이 한창 삶을 치우는 계절적 특점만으로 그리 말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아마도 국사를 돌아보았을 때 유년시 4월에 굴적곡직한 일몰이 많았기 때문일 것이다. 동학농민운동 불타온 하는 김충민운동이나 4.3제주민중항쟁, 4.19혁명.....

하지만 역사는 그 시간의 흐름에 따라 해석이 변하고 또 변하는지라 그 시간을 한 곳에 고정시켜 둔 채 살보리 판단하고 단정지어 말할 수는 없다. 부단히 읽고 생각하고 이야기해 붙인다. 인문외의 여러 학문 중 특하나 역사는 사람이 살아온 자취를 바로 알고 바로 살아갈 지표를 그려주는 막대한 만큼 시간과 공간을 잘 아우르며 공부해야 할 것이다. 4월의 목성 3월 20.31일 사흘 동안의 춘계고적 담사가 바로 그러한 시간이었다.

아침 일찍 잠상에 모인 담사를 떠나기 전까지는 2월 31일의 담사에 대해 100명 남짓의 사회와 사람들의 생각은 저마다 달랐을 것이다. 화점 때문에 내키지 않은 길을 떠나는 이도 있었을 것이고 나들이 가는 실렌으로 나선 이도 있었을 것이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담사 특점으로 사람들은 이번 담사에서 무엇을 공부하게 될 지에 얼마간의 정보는 있었지만 항상 그릇된 담사는 담사지를 받고 담사 장소에 가야지만 큰 의미가 있었다.

어쨌든 한이 넘게지는 전라도 땅에 우리가 처음 내려 찾아간 곳은 익산의 마복사지였다. 5세기 중엽부터 백제의 지방 중심 세력이었다던 익산은 화려했던 백제 문화를 가졌던 곳이었다.

그 자취를 더듬어 느껴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것이 널리 알려져 있는 마복사지 석탑이었다. 마복사지 석탑은 백제 말기의 화강암 석탑으로 우리나라 석탑 중 가장 오래되고 규모가 큰 탑인데 지금은 반이 남게 절터 나가고 서쪽 편은 시멘트로 덮여 버려 슬슬한 느낌을 준다. 우리 민족이 우리 문화재를 외세로부터 지켜내지 못하고 제대로 복원하거나 바로잡지 못한 흔적은 생활 곳곳에서 찾아 볼 수 있는 흔한 일이었으나 예제 첫은 시작에서 이런 모습을 마주 할 때 안타까운 마음은 특히 더 하곤 한다. 백제의 가장 빛났던 날의 사람들이 미래를 기다리며 오갔을 마복사지는 웅장한 감도 없지 않았다.

그 다음 일정은 정읍의 만석보였다. 고부민란의 큰 원인이 되었다고도 할 수 있을 만큼 보가 있던 원리와 그에 대한 설명을 선생님께서 들은 동안 내가 그 당시 이곳에 살았던 농민이었다면 하는 생각을 했다.

만석보에서서는 유난히 바람이 많았다. 봄에는 그 바람이 그저 배를 띄워주는 바람으로만 느껴지지 않았던 이유는 뭘까. 역물한 보세 때문에 항의 하다가 매만 싹트고 새는 새대로 물난, 기림주에 못 건대 동학 농민전쟁의 표시인 고부민란을 일으킨 농민들의 함

성처럼 느껴졌다. 고부민란을 정령하고 만석보로 달려가 보를 속 시원히 힘어 부수던 그때들의 몸짓을 보며 위에 그려보았다. 너른 배를 띄워주는 바람, 손에 잡힐 듯 생생하게 느껴졌다. 국보나 사적으로 지정되어 있는 사찰이나 기념탑들도 많았지만 만석보에서는 가장 인상있었던 담사 일정이었다.

만석보를 사자로 찾았을 동학의 자취를 찾는 동안 기이하게 갔다. 전봉준 고대에 갔을 때나 동학혁명 묘의 탑에 갔을 때 동등 역사적 사실의 본뜻이나 원래 모습과는 달리 복원되고 기념된 모습을 대하는 일은 별로 즐거운 일이 못 되었다. 사찰을 알지 못한 채 보는 미혹함보다는 나를 것이다. 그러나 뜻 있게 살다간 사람들의 글은 뜻이 후대 사람들의 이리저리러하는 의도들로 왜곡된 모습을 하게 된 것은 분명 안 피개은 일이다.

파고한 하루의 여정이지만 첫날 저녁에는 한 상 사회과의 담사다운 세미나가 있기 마련이다. 이번 세미나는 주제는 고인물이었다. 국사 교과서에서 잠시 언급된 정도 모르면 내게 이번 세미나는 꽤 알찬 시간이었다. 비디오편을 활용하여 사인 지식을 쌓고 발제자가 써온 자료를 활용하여 사인 지식을 쌓고 발제자가 써온 자료를 활용하여 사인 지식을 나누는 세미나 시간은 2000학번 세미나 사회에서 한국학을 공부하는 외국인 대학원생, 사회와 선생님들까지 외대 사학인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공부하는 시간이었다. 그 의미가 컸고 인문외부생에서 사회와 학생이 되어 처음 갖는 세미나였던 때문인지 세미나가 어떤 것인지 이제 좀 알 것 같은 보람 있는 시간이었다.

2 둘째 날은 실학자 유영원 유하지 부터 시작해 담사지만 빠지지 않는 사할 두 곳, 재석강, 전 날 세미나로 공부한 고인물들 배려적인 일정이 많았다. 전날 밤의 의기투합(?)덕분인지 사람들은 첫 날 보다 화가에게 하게 부드러운 봄 땅을 발목으로 느끼며 담사를 했다. 항상 어떤 역사적 사상이나 유적을 대할 때 지금의 시간이 아닌 그 당시의 시간에서 생각해야 한다는 선생님의 '담부' 말씀은 유영원 유하지를 둘러보는 동안 많은 도움이 되었는데 그 가르침은 사학 하나하나를 보는 눈을 넓혀주었다.

말했듯이 사회와 담사 일정 중 사할은 항상 빠지지 않는다. 그도 그럴것이 사학만큼 그 시대의 사상과 예술 등 전반적인 시대상을 압축해 가진 것이 없기 때문이다. 이번 전북 담사에서 우리가 둘러 본 사할은 각각 명소로 유명한 한소사와 신문사, 금산사 세 곳이었었는데 단순히 그 사할의 아름다움만 느끼고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사할들에 얽힌 저마다의 역사적 일들과 예술적 개성을 알 수 있어 좋은 기회였다.

재석강은 전라도 땅에 온 불만 아니라 바다에 온 불개에도 맞을 수 있게 해준 일정이었고 좋은 추억을 만들기에 알맞기도 했다.

세미나를 통해 이론적 지식을 얻고 보는 고인물은 더욱 더 기억에 남고 '아는 만큼 본다'는 말을 명심하게 만드는 일이 되기도 했다. 선사시대인들이 고인물을 만드는 모습과 그 시대를 자유롭게 상상하며 찾아간 곳은 고창을 삼이었다. 시간을 훌쩍 뛰어 넘어 조선 단종, 숙종 때를 지어졌다. 이 산성은 여러 산성들보다 작은 편이었다. 성의 구불구불한 모양을 따라 걸어보면 고창 시가지가 눈에 들어온다. 발도 보이고 학교도 보이고 아파트도 보이는데 성곽을 따라 한 줄로 줄을 지어 묵묵히 걷는 사회와 사람들은 저마다 무슨 생각을 했을지.

둘째 날 밤은 담사를 떠난 모든 이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회식이 있는 날이다. 담사의 반을 마쳤다는 안도감과 끝났던 선배들이 만나고 가는 자리라는 즐거움으로 여음이 넘치는 시간이다. 사람들은 회식으로 더 같은 사회인이라는 기분을 갖게 되고 함께 하는 자리는 늦게까지 이어졌다.

3 마지막 날의 일정은 장승이나 남근석 등 민간신앙에 대한 것들로 시작되었다. 장승이나 남근석은 생각보다 흔하 볼 수 있는 것들이었고 그 위치도 주민들이 농사짓는 밭, 논 한가운데였다. 백제의 사회와 사람들이 높은 누두를 줄지어 걷는 전통들이 남아있기도 했다. 커다랗고 유명한 많은 유적들이 있지만 어쩌면 이것들이 더 사람들의 발자취를 길게 쫓아주는 것들이 아닐까. 담사를 온 첫날보다 한결 따뜻해진 전라도 땅에서의 담사는 금산사를 끝으로 마쳐졌다.

2박 3일간의 여정동안 선사시대 고인물부터 백제, 신라, 고려뿐만 아니라 조선 중기, 또 동학 농민운동이 있었던 조선 말, 불과 심 및 년전 군사정권 때 세워진 묘의탑까지 사대를 넘나들며 담사를 다녔다. 어떤 때는 옛 장승이 사할의 숨골이 느껴져 전라도 말로 '전하' 기도 했고 어떤 때는 바로 세워지지 못한 모습들로 답답하기도 했다. 또 어떤 때는 다 함께 와와 거리며 웃을 일도, 아들에게 감탄하는 일도 있었다.

담사를 떠날 때마다 눈이 커지고 생각이 자라는 느낌이다. 이번 전라북도 담사... 어떤 역사적 지식을 몰라도 괜찮다. 그저 부드러움이 올라오는 봄 땅을 밟아보는 기분좋은 며칠이었어도 좋았다.

많은 사람들이 항상 변하는 달의 그 정묘함에 쉽게 달의 본질을 잊고 다른 이들을 붙여 부르지만 달은 원래 별 하나 아니냐. 그 달의 본질을 알기 위해 고요히 있고 부단히 생각하도록 카를 한 발음 키우는 시간이었다. 사회와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이고 같이 생각을 키우는 좋은 사할 붙잡아냈다.

김보연
(인문·사회 2)



4월에도 눈이 내리는 따뜻한 강의심, 정신없이 지나는 시간과 쉽게 변하는 공간 속에서 느린 시간과 옛 공간이 공존하는 곳, 외대의 발자취를 남긴 이들의 추억을 담고 돌아올 고향같은 곳. 마리의 지신인 사인남세의 자연세계를 알리며 마음의 지식을 채워주는 강의심. 그곳이 준비되어 진행되는 본관산책에 의해 이어질지도 모른다. 사인이 외대인들의 마음을 식락하게 합니다.

사진부

나의 가벼운 이층침대

주진형
(동양학·서고이 3)

어떤 꿈이었나
시간은 0시 00분

어린시절 밤이 닿지 않는 의자처럼
나무는 점점 자라나 내 꿈을
작토록 놓는 우듬지에 걸여 놓았네
마법의 양탄자처럼 가볍게 떠오르는
오, 아름다운 나의 이층침대
그 위에서 시계가 멈춘다
시간은 0시 00분

카우즈 침대를 기울여 시계를 본다
다지침의 명멸 속에
나라났다가 또한 사라지는
160cm의 내 젊음의 높이
어쩌다 이렇게 높은 곳에서
내꿈은 길을 잃었나

시간은 0시 00분

꽃씨가 날려, 또 새로운 꽃을 피웠습니다

여기 꽃씨가 피었습니다.
4·19...들이 피었던
꽃씨가 하나의 꽃이 되어,
이곳에도 새로운 꽃이 피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어느덧
저 멀리 과거에
우리 선배들의 정신은 여기 꽃이
새로운 꽃씨를 허공에 뿌립니다.

본근리에, 외산에, 곡안리에, 칠곡군에
펼쳐진, 미군 학살에 의한
일단의 꽃씨도
언젠가는 꽃이 될 날이 있겠지요.

이슬한 독재정권에 맞서, 아름다운 꽃을 피웠던
우리 선배들의 꽃씨가 오늘도 땅에 내립니다.

민족자주권
외대학보